

“우리는 불의에 항거한다”, 계엄 시도 이후 커가는 비판

김문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종료된 지난 4일, 아침 학교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다. 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이틀간 실시했고, 구성원 82%가 계엄 근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탄핵엔 86%가 찬성했다.

이틀 동안의 설문엔 991명이 참여했다. 계엄의 근거로 제시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 고위 공무원 탄핵 추진 등 민주당의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근거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11%,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82%,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6%였다.

계엄령 공포 절차 위법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95%,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3%,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였다.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86%, 반대하는 사람은 6%,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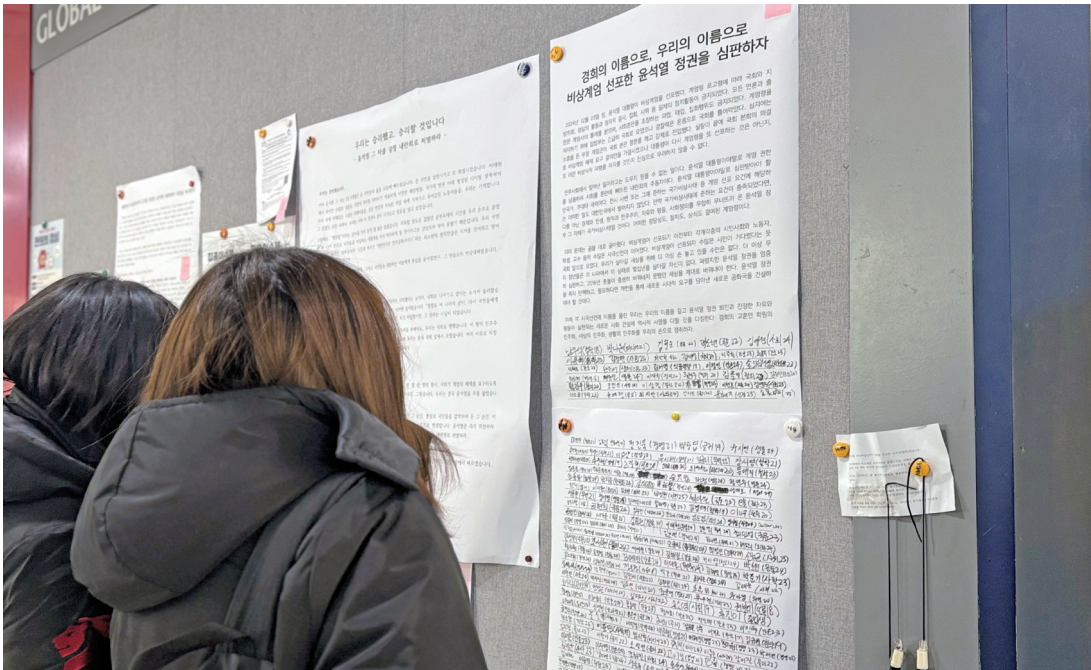
대자보는 학생 개인, 역대 총학생회장단, 사학회가 붙였으며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연석중운위) 성명서도 나왔다. 각종 대자보는 청운관, 사색의 광장, 각 단과대 게시판에 붙었다. 게시판 앞은 이를 구경하거나 서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북적거렸다.

남우석(철학 2018) 씨는 ‘경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제목의 연서명이 가능한 대자보를 작성했다. 남 씨는 박나원(미디어학 2021) 씨와 시국선언문을 작성했다. 해당 선언문 하단 여백에는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서명란을 두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이틀간 총 415명의 학생이 서명을 남겼다.

남 씨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은 그만큼 정권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이라며 “현재 학생사회도 무언가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자보에 서명한 김성욱(컴퓨터공학 2018) 씨는 대통령과 탄핵 반대를 채택한 여당을 비판했다. 김 씨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위헌 여지가 충분해 탄핵 반대를 택한 여당 결정에 유감”이라며 “지금은 당파 싸움이 아닌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때”라고 말했다.

학과 차원 대자보도 게시됐다. 사학과 학부생·대학원생·교수가 한



학생들이 청운관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를 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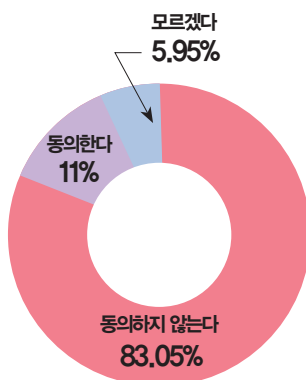
(사진= 김유경 기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 설문정보**
- 대상: 경희대학교 전체 구성원
 - 조사기간: 2024.12.04 ~ 2024.12.05
 - 응답자: 991명
 - 조사방법: 경희대학교 대량메일 및 설문시스템을 이용한 이메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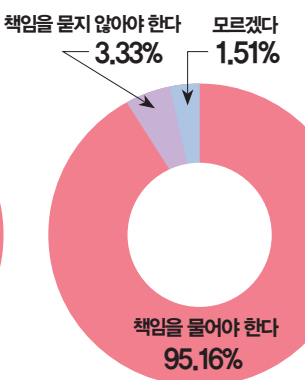
Q1. 윤 대통령이 계엄의 근거로 민주당의 폭주로 인한 국정마비를 주장한 것에 대한 생각은?

동의한다 11%
동의하지 않는다 83.05%
모르겠다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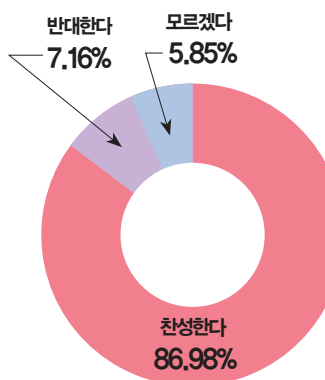
Q2. 윤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 95.16%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3.33%
모르겠다 1.51%



Q3.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한 생각은?

찬성한다 86.98%
반대한다 7.16%
모르겠다 5.85%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이다. 그들은 “이번 계엄령은 민주적 성취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과거 독재 정권의 억압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통령 사임과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엄정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대자보를 작성한 장우혁(사학 2022) 씨는 “계엄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국회로 달려가지 못했다는 것은 사학도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학과 구성원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학과 운영위원회에 대자보 작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책임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학교 사학

과뿐만 아니라 학생사회, 나아가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우성(철학 2019) 씨도 ‘분노를 넘어 불안을 느낀 어느 소시민적 학생의 고백’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장 씨는 “포고령 제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로 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성경현(경제학 2020) 씨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대자보에서 학생들에 시국선

언 동참을 호소했다. 성 씨는 “그동안 불만이 있었어도 나서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계엄 사건 이후 더는 못 참겠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태(환경학및환경공학 2019) 씨도 ‘무능함을 넘어 위험한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김 씨는 대자보를 통해 “무능한 대통령을 넘어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대통령임을 스스로 공표했다”며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캠 중운위 구성원은 ‘학문과 평화의 이름으로 :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다음날에는 연석중운위가 자주경희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뒤이어 역대 총학생회장단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시국선언, 윤석열의 반헌법적 폭거에 우리는 끝까지 항쟁할 것이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16대 총학생회장을 시작으로 55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까지 총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준영(정치외교학 2022) 씨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본인의 권력 유지와 모든 반대자 제거를 위해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탄핵 반대를 채택한 여당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경은(국어국문학 2021) 씨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위헌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식적인 판단에 역행하는 여당의 당론 채택은 그저 여당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 여당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원(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24) 씨는 “탄핵소추 사유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중립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인 국정 개입 허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마음대로 반국가 세력을 결정하고 국회를 탄압하려 한 것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세환(철학 2023) 씨는 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도, 폭력 대응과 계엄 사태의 정치적 이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씨는 “국회 점거 당시 계엄군에 대해 억지로 폭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태도는 되려 사태를 견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상관의 지시를 최소한으로 따르고 있는 군인들을 악마화하고 본인을 성녀화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대자보 이후 대응 계획은 아직 따로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서울캠 서인하 부총학생회장(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또 나서게 되지 않겠나”고 답했다.